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정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Kent, Ohio
파견대학	Kent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8.08.15 – 2019.05.10
귀국여부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Kent State University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 그 중에서도 Kent라는 작은 규모의 마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규모가 큰 도시인 Cleveland와는 차로 1시간 이내, Akron과는 30분 이내입니다. 미국 주요 관광지인 워싱턴과는 차로 7시간 이내, 나이가라라 폭포도 7시간 이내 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국제학생들을 데리고 이 곳들을 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미국 동부의 많은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p> <p>규모는 순천향대에 비해서 4,5배 정도 큰 것 같고 그래서 각 단과대 건물마다 거리가 상당하지만 산이나 언덕이 없고 평지라 등교, 수업간 이동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신식건물과 구식건물간의 격차는 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축학과 건물은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고 내부시설도 세련되어서 수업을 안 들어도 시험기간에 가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p> <p>학교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들이 자주 개최되고 로컬 학생들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체적으로 열린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제외한 켄트 자체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학교를 나서면 외국인을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p>

2018-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Human Resource Management : 한국 대학교의 수업과 비슷했던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준비하신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조별과제 한 번, 개인과제 한 번이 있습니다. 중간과 기말은 전부 객관식이고 OMR 카드에 마킹하는 형식입니다. 조별과제는 Resume fraud case를 선택해서 조끼리 분석하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첫 조별과제라 시작 전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 실제로 과제중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 경험해보니 해 볼 만 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조별과제가 있는 수업도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과제는 교수님이 지정한 article을 읽고 reflection paper 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교수님들은 특히나 페이퍼의 형식 (APA, MLA 등) 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미숙할 뿐더러 영어도 완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도서관에 Writing commons에서 인용형식과 문법 등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받고 수정 후 과제제출을 하였습니다.

Consumer Behavior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 둘 다 객관식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피피티 자료와 수업 중간중간 메모해뒀던 내용만 공부했는데 시험을 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책을 필수로 사라고 사전에 고지하셨지만 한 학기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별과제는 할 것들이 좀 많은 과제라 수업종료 전 15-20분을 남기고 조별회의 할 시간을 한 학기 동안 따로 주셨습니다. 덕분에 따로 만나서 조별과제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나 제품을 정하고 그것의 경쟁 브랜드나 제품 3곳을 추립니다.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이 때 소비자들의 나이, 취미 등의 정보들도 함께 조사합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떤 특징을 가진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상품을 선호하는지 분석합니다. 분석으로 알아낸 유의미한 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브랜드/상품의 새로운 잡지광고를 만들어봅니다. 그 잡지광고는 설문에 응답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할 것이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은 과제였습니다. 수업에 배운 이론을 과제에 바로 적용시켜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Introdu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회계원리를 배웠다면 그거에서 조금 더 배우기 때문에 쉬운 수업이 될 것입니다. 매주마다 Blackboard라는 학교 페이지에 과제가 나오는데 양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만 신경 써서 열심히 하면 따로 시험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계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고 복습이 아주 잘 됩니다.

	<p>수업보다는 과제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은 탓에 (최소 100명이상)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데 둘 중 어떤 것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시험도 인터넷으로 보는데 무려 5번이나 시험을 봅니다. 개념부터 기본적인 계산, 응용문제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p> <p>Introduction to Hospitality Management: 우선 이 수업은 교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수업도 재미있게 진행하십니다. 호스피탈리티를 전공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해 배웁니다. 각각의 분야들에 유명한 기업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취업하기 위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가 중점인 수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는 점이 가장 좋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자기가 인상 깊었던 다섯 번의 강의를 골라 느낀점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제출만하면 거의 만점을 주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신의 느낀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보고 Career paper라고 해서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곳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과제가 중간고사 대신 있습니다. 이벤트 회사 CEO분부터 디즈니랜드에서 일하시는 분과 카지노를 운영하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반면에 여러 직업/직무를 탐색하는 수업이니만큼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듣는 수업이고 전공과 관련된 전문지식들을 습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p>
<p>2019-1학기 수업</p>	<p>Advertising and Promotion Management: 총 세 번의 시험을 보고 그 중 점수가 높은 두 번의 시험이 최종 점수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두 번의 시험결과에 만족하면 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세 번째 시험을 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종강하고 집에 가기 바빠 치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일반적인 강의형식인데 아무래도 광고, 프로모션 수업이니만큼 교수님께서 최대한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거의 매 수업마다 출석체크를 대신해, 수업시간에 해서 수업 끝나자마자 제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광고를 보여주시고 그게 우리가 배운 어떤 광고전략을 활용하였는지 서술하는 식의 짤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팀프로젝트도 하나 있습니다. 한 제품이나 브랜드의 특정 광고 캠페인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과제입니다. 발표 시 프로페셔널한 복장을 갖추는게 요구되는데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고 각자 나름대로의 단정한 옷차림을 입는</p>

정도입니다.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책을 꼭 사라고 하셨지만 안 사셔도 공부하고 시험 보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수업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공책이 한국도 비싸지만 미국은 2배로 비싸기 때문에 우선은 책 없이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 후에 필요성을 느끼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Individual and Group Behavior in Organizations: 미국에 오기 전 저는 미국대학 수업은 이렇겠지 하는 환상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자유롭고 수동적인 강의가 아닌 보다 다채로운 수업일 것이란 기대였습니다. 18년도 2학기에 들었던 수업 중에는 Introduction to Hospitality Management가 이 환상과 어느 정도 부합했다면 19년도 1학기에는 이 수업이 제가 상상했던 '미국 수업'과 비슷했습니다. 교수가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학생과 교수가 대화하는 분위기의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짧게 수업을 하시고 그 날 수업 내용과 관련된 토의 주제를 내주십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들을 '공부'하기 보다는 '습득'하게 되고 '주입'받기 보다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는 대신에 기업문화에 대한 사례들을 보고 수업내용과 연관지어 에세이 다섯 편을 제출합니다. 한국과 다른 수업방식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 글 쓰는 것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Exploring Business: 비즈니스와 관련한 모든 분야들을 전체적으로 훑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경영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진로를 고민하는 다양한 학생들도 많이 수강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하는 수업입니다. QT2 Clicker 라는 걸 사용하는데 작은 계산기처럼 생겼고 교수님이 수업 중간중간 내는 팝업 퀴즈들에 이 클릭어로 정답을 누릅니다. 또 수업 시작하고 3분 정도 수업주제에 대해 파트너와 생각을 교환하는 시간도 나누는데 이 때 클릭어에 파트너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클릭어 답변으로 출석률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 수업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요 이슈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 영상에 대한 퀴즈들을 노트북으로 푹니다. 이 퀴즈들도 물론 성적에 반영됩니다. 중간 중간 단원평가 느낌처럼 네 번의 시험을 보고 비중이 가장 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번의 시험을 푹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다 수업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참여만 잘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Marketing: 전공책을 구매해야 하는데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구매합니다. McGraw-Hill이라는 곳에서 사시면 되고 매 주 한 챕터씩 읽고 문제를 푹니다. 그리고 Blackboard에서 챕터에 따른 주제에 대한 토의를 합니다. 과목 자체가 흥미로워서 저는 재밌게 들었던

	<p>수업입니다. 네 번의 시험을 보고 모두 비중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배운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p> <p>Beginning Spinning: 미국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먹는 음식들이 다 칼로리가 높고 기름지다 보니 체중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수업들을 알아보던 중 스피닝 클래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체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앉아서 타는 것만으로 힘에 부쳤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체력이 느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에 맞춰 앉았다 일어남을 반복하거나 아령 같은 기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KSU의 Gym이 넓고 시설도 아주 좋은데 거기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전 학기에 비교했을 때 확실히 체중이 더 이상 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운동을 한 번도 꾸준히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수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꾸준히 하게 되어서 그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교수님이 나누어주신 유인물에서 그대로 나오고 종강전에 팀프로젝트에 하나 있습니다. 팀별로 직접 노래를 선택하고 스피닝 자세를 정하여 돌아가며 교수님처럼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KSU에 오신다면 굉장히 다양한 체육수업들이 있으니 스피닝이 아니어도 하나쯤 꼭 수강해 보시길 권합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개강 전에 국제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이 때 조를 짜주는데 이 때 조가 된 친구들과 한국 돌아오기 전까지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꼭 필요할 필수적인 정보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 때 잘 들어두시면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p> <p>앞서 한 번 말했듯 이 학교에는 국제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들을 위한 행사들도 많습니다. <i>International Talent and Fashion Show</i> (국제학생들이 자신들의 전통 옷을 입고 전통 춤을 추는 행사, 학교 축제만큼이나 큰 행사), <i>Travel the World on ____</i> (순천향대의 글로벌 빌리지처럼 KSU의 글로벌 빌리지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매 달마다 한 국가를 선정해 그 국가의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를 소개한다, 한국도 한 적이 있음, 호떡과 불고기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시식하게 함), <i>International Social Hour</i> (격주로 글로벌빌리지에서 하는 소셜아워,</p>

	<p>다과들이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 시간), <i>Thanksgiving Dinner</i> (Global office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기 위해 국제학생들을 초대해서 칠면조 요리를 포함한 다양한 미국 가정식을 제공하는 행사) 등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학생들을 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KSU의 Global office에서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들을 이메일로 발송해 주므로 항상 꼼꼼히 읽어보고 관심 있는 행사들을 놓치지 않고 참석하길 바랍니다.</p> <p>그리고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번째는 Conversation partner. 국제학생들을 미국학생들과 매칭해줍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만나도록 되어있으며 무얼 하는지는 자율입니다. 저는 매칭된 친구와 잘 맞아서 같이 쇼핑도 다니고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도 하고 집에도 놀러 가는 등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p> <p>두번째는 Host family. 이것은 학교주관이 아니라 근처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날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가족들을 뽑아서 KSU의 국제학생들과 매칭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가족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추수감사절도 호스트 패밀리네 집에서 함께 보내고 한국 돌아오기 직전에는 아쉬워서 다 같이 안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이 많이 들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꼭 하시길 추천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현지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한 편입니다. 다만 겨울이 조금 더 길고 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자주 와서 다들 가방에 우산을 상시소지하거나 그냥 젖든 말든 다 맞고 다닙니다. 햇빛이 짹짹 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곤 합니다. 그리고 약 9개월을 머무르며 딱 한번 토네이도가 온 적이 있었는데 기숙사 전체가 정전되고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RA(층장과 같은 역할)의 안내에 따라 모든 기숙생도들이 1층에 모였습니다. RA의 안내를 무시하고 방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현지상황을 잘 모르는 교환학생의 신분인 만큼 안전을 위해 더욱 더 안내에 잘 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p>	<p><i>현지 안전 상황</i></p> <p>학교를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느낀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인만큼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i>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두 학기 모두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기숙사를 신청할 때 돈은 학기별로 나눠서 지불하지만 1년을 기본 단위로 신청이 됩니다.</p> <p>제가 산 기숙사는 Centennial Court F입니다. KSU에 있는 기숙사 건물들 중에서 Centennial이 붙은 기숙사들이 제일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아주 좋았습니다. KSU의 기숙사 종류가 10개가 넘는데 대부분이 방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CCF는 개별 화장실/샤워실이 방마다 있다는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격도 비쌌습니다. 3명에서 공유하는 방 기준 학기당 \$3,748입니다.</p> <p>미국 대부분의 기숙사들이 입사를 할 때 룸메이트들 그리고 RA와 모여서 그 방만의 Roommate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친구는 데려올 수 있는지, 가족을 데려와도 되는지, 물건은 공유할 것인지 등등 생활 전반적인 규칙들을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방을 쉐어하며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때 꼭 말해서 Roommate agreement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중에 혹시나 생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i>학교 Meal Plan (O)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O 가끔) 직접 요리 ()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밀플랜은 종류가 다양한데 교환학생 왔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블루플랜을 샀어요. 가격은 \$2,145이었고 한 학기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다이닝 홀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의 게스트 밀플랜이 있는데 이걸로 친구나 가족들의 식사를 살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다이닝 홀은 Eastway와 Prentice입니다. 뷔페처럼 여러 메뉴가</p>

	있고 원하는 만큼 몇 번이고 받아올 수 있어요. 맛있고 특히 디저트가 최고입니다. 맛있는 것도 아무리 먹으면 질리니까 가끔 학교 밥이 질리면 다운타운에 가서 밥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학교는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 내를 순환하는 셔틀도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Target이나 Wall mart에 가려면 Student Center 앞에 큰 학교 버스정류장에서 Parta 버스를 타면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몰라서 비싸게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시행착오 없이 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arta 버스 어플이 따로 있는데 그걸로 노선이나 버스 도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다운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Kent State University 학생은 학생증을 보여주면 Parta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 약 120만원	(직항 X 경우 필수, 아시아나 이용 기준)
Fees		
보험료	1년 \$730	Kent State University에서 국제학생에게 지정해 놓은 보험
숙소	학기당 \$3,748	Centennial Court F 3인실 기준
식비	학기당 \$2,145	Blue plan 기준
교통비		
책값	2018-2학기 2권 약 \$200 2019-1학기 3권 약 \$300	E-book 도 포함함

기타1	1학기 여행경비 약 150만원	나이아가라 폭포, Cedar Point, 뉴욕, 보스턴 (오래 전이라 경비정확 X)
기타2	2학기 여행경비 약 170만원	워싱턴,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니언, 로스앤젤레스 (마찬가지로 정확 X)
합계	1년에 약 1800만원	불분명해 기재를 하지 않은 Fee 부분을 포함하면 20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환학생은 영어를 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일년간 써먹으며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가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 파견 전까지 최대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얻게 됩니다. 미국에 갔다고 해도 한국인들하고 어울리고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시험 공부하고 가끔 친구 만나고 놀면서 생활하면 얻는 게 적은 것 같아요. 이왕 온 거 최대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고 그러려면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며 다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점 잘 받는 것도 기분은 좋지만 아시다시피 교환학생은 학점인정이 PASS OR FAIL 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학점 관리 이외에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취미든 운동이든 여행이든 동아리든 그 동안 한국에서 못 했던 새로운 것에 하나라도 꼭 새롭게 도전해보세요.

짐 챙길 때 옷은 많이 가져오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일단 교환 오신 분 대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도 안 하시고 주로 트레이닝복이나 레깅스만 입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져갔던 원피스나 블라우스 같은 것들 다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입을 일이 있어도 한국스타일하고 미국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갖춰 입을 날 있으면 미국에서 사서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옷이 싸다 보니 쇼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국 돌아올 때 짐이 많으니까 가져왔던 옷들은 친구들에게 반 이상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옷은 미국에서 사서 입으시길 추천합니다.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돌아올 때 되면 고마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 때 되면 뭐라도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실 때 미리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짐이 많기 때문에 거창한 것보다는 한국적인 엽서나 열쇠고리, 팔찌 등 작아도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일본인 친구가 준 손수건과 부채를 받았어요. 그 친구도 일본에서 올 때 미리 가져왔었는데 굉장히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저는 꽤 오랫동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잊고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을 바라보며 공부를 했고 입학 후에는 장학금만 바라보며 또 공부했습니다. 교환학생을 오고 성적의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가 생기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춤을 추지 않게 됐는데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POP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친구들과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면서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의 시간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자고 다짐했습니다.

교환을 준비하며 영어공부를 할 때조차도 사실 저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언제나 저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수단, 교환 학생으로 외국을 가게 해 줄 수단. 교환에 가서도 처음에는 나를 편하게 해 줄 수단, 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계속 영어를 쓰며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랑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가 언어에 묻어나는 것이 알면 알수록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이제 스펙을 위한 영어가 아닌 영어 그 자체를 잘하고 싶어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9개월을 사는 동안 고마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어떤 연고도 없는 외국인들 사람들은 참 많이도 아껴주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도 컨벌세이션 파트너도 교수님들도 친구들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타국의 소녀를 위해 많은 일들을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순천향대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왔냐'는 점이었고 그 결과 앞으로 학교에 복학하면 내가 외국에서 받은 친절들을 잊지 않고 우리 나라를 찾아준 외국인들에게 되돌려주자고 다짐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평소 식단 모음</p>	<p>호스트패밀리와 함께</p>
	
<p>친구들과 코리안 레스토랑</p>	<p>국제교류처에서 간 캠핑</p>
	
<p>K-POP 클럽 친구들과 정기공연 마치고</p>	<p>도서관에서 열린 할로윈 행사에서 친구와 함께</p>